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온성도 화목의 주일

2025년 2월 9일(주일) 오후 1시 예배는 기관별 척사대회로 진행합니다.
행사준비 : 남전도회, 여전도회
참 가 팀 : 노년부,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3. 제82년차 경기서지방회

일시 : 2025년 2월 9일(주일) 오후 1시
장소 : 세한교회

4. 장학주일 및 교육부서 헌신의 주일

일시 : 2025년 2월 16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대상 : 장학위원회 선별 후 지급
특송 :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하나인 소개

5. 연말정산/기부금 영수증 신청

2024년 연말정산서/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담임목사
개인톡으로 신청서(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상봉 한지석 이광근 정지혁 오동영 임명숙 임명자 신규하)

6.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근북무 申),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함소리·함단(모로코-병가)

7. 2025년 2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1.4 ~ 2.1)

2/02(목)-한정일 성도(-1.5) 2/03(일)-김혜숙 권사(-1.6) 2/08(목)-임명숙 집사
2/08(토)-전가운 어린이 2/10(일)-공은주 어린이 2/21(금)-문수인 어린이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2/09 임명자 집사
2/16 임명숙 집사
2/23 김혜숙 권사
3/02 정애자 권사
3/09 박재연 집사
3/16 이광근 안집사
3/23 임명자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2/09	온성도 화목의 주일척사대회 웃음이, 제가차기, 투호 등
02/11	제82년차 경기서지방회(세한교회)
02/16	장학주일(장학금 수여) 교육부서 헌신주일 (부서별 특송)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하나인 지역소개(박재연)
16~28	전교인 축복 대심방
02/18	경기서 교역자회 2월 정기총회
02/20	성경통독 부흥회(아브라함업주관)
02/23	3.1운동 106주년 기념주일
02/25	아브라함업 홈스쿨 개강예배
03/01	찾날빛이 일사예배 (성찬예식)
03/02	성령주일 / 산성변모주일

주일 사랑 운동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주사랑 8권 6호 | 2025년 2월 9일
창립 2017.11.25 | 주원 후대세 주/ 온성도화목주일
기 독 교 주사랑교회
대한성결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온 성도 화목의 주일 / 척사대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19)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온 성도 화목의 주일) 인도:집례자

※ 목 도 시편 133:1~3 다 같 이

※ 찬 송 가 다 같 이
(당신은 영광의 왕)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13 시편 23편 다 같 이

찬 송 가 다 같 이
(비 준비하시니)

대 표 기도 임명자 집사
(청년부 부장)

※ 성경 봉 독 고린도후서 5:17-21 임명자 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라 담 임 목사

봉헌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우 어린이)

※ 축 도 담 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김혜숙 이재우 이재우 임명순 장애자 한성결 한승훈 임명순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 김은채 김민 김호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재연 이광근 오동영 임명순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감사헌금 : 김혜숙 박태성 이광근 박재연(자녀) 한승훈 임명순 한창수 오경자(명절)

월삭감사 : 한승훈 임명순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희 이재우 임명순 한태민 한희락

구역헌금 : 김혜숙 박재연 임명순

선교헌금 : 문동진 임명자 한은총

후원헌금 : 정지운 오복상 방예경

성 미 : 박태성 장애자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책사대외/투오/제기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이사야 11:6-10 (구 982)
말씀제목 경쟁을 내려놓고 협력하는 나라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5:1-9 (신 149)
말씀제목 세 번째 표적과 성자의 권한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부모님 중
성경봉독 왕상 19:1-21 (구 549)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여호수아 19:24-51 (구 815)
말씀제목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뉘 뜻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9월일 수 20:1-9 소위보다 중요한 관계
10월월 수 21:1-19 성결한 성도로 사는 삶
11월화 수 21:20-45 생명보다 귀한 영영한 기업
12월수 수 22:1-9 자발적인 화해와 섬김
13월목 수 22:10-20 사랑의 기준으로 삼는다
14월금 수 22:21-34 오해를 버리고 존중하기
15월토 수 23:1-16 하나님을 사랑하라
16월일 수 24:1-18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가타 기관 선교

온포드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국외선교(오주교후후스쿨)



해외선교(모로코)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⑥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께 드린 이사야의 간곡한 기도는? (사 63:16~17)
주는 우리 ()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

⑦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가 붙잡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나요? (사 64:8~9)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시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이니이다

⑧ 이사야의 간곡한 중보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부분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사 65:1~3)
나는 ()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⑨ 하나님께서 지적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죄는 무엇인가요? (사 65: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해이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 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 우상숭배

⑩ 여호와께서 심판과 진노를 그치시는 그 날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사 65:17)
보라 내가 ()과 ()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⑪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 65:24~25)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도 없겠고 ()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회복된 시온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덧입게 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무엇에 비교하였나요? (사 60:1~3)
 일어나라 ()을 발하라 이는 네 ()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나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으로 나아오리라
- ②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고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 61:1~3)
 주 여호와와 ()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 포로된 자에게 ()를, 갇힌 자에게 ()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③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사 5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 그리하면 그가 ()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하시리라
- ④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와 교회를 무엇이라고 브라졌다고 했나요? (사 62:4-5)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라 하며 네 땅을 ()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하시리라
- 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백성을 불러모으시기 위해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사 62:10-12)
 성문으로 () 백성이 올 길을 () 큰 길을 ()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이라 여호와께서 ()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요 ()이라 하리라

신앙의 향기 - 진홍 가슴새의 비밀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22)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는 이름과는 달리 새하얀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새들이 여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이루며, 사람을 고쳐주고, 소망을 심어주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군인들이 찾아와 아무 죄 없는 이 남자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더니, 급기야는 높은 언덕 십자가에 그 남자를 못 박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진홍 가슴새가 남자를 도우려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이 작은 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이마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를 뽑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시를 뽑던 진홍 가슴새의 가슴에 피가 한 방울 튀었는데, 이 피는 물로 씻어도, 낙엽으로 비벼도 좀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남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진홍 가슴새는 그제야 왜 자기들이 진홍 가슴새라고 불렸는지 깨달았습니다.

1909년 여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셀마 라게를뢰프(Selma Lagerlof, 1858-1940)¹⁾의 “진홍 가슴새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흔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흔적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참고 -----

1) 셀마 라게르뢰프는 스웨덴 여류작가. 1885~1895년까지 10여 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그녀는 민간기원의 소재에 깊이와 의미를 더한 작품을 써서 유명해짐. <닐스의 이상한 모험>, <로벤시월드의 반자> 등.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신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1	사도신경	다 같이	895	북조 바야사의 침입	왕상 15:17
2	찬 송 가 찬 300장.....	다 같이	895	제2차 남북조 전쟁	대하 16:1
3	대표기도	자녀 중	886	북조 엘라의 등극(~885)	왕상 16:8
4	성경봉독 왕상 19:1~21	말은 이	885	북조 시므리의 모반	왕상 16:16
5	말씀인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부모님 중	885	오므리 왕의 등극	왕상 16:23
6	합심기도	다 같이	824	아합의 등극	왕상 16:29
7	헌금기도 찬 325장.....	말은 이		엘리아의 사역	왕상 17:1-24
8	주기도문	다 같이	872	남조 여호사벳의 등극	왕상 22:42

■ 들어가는 말

선지자 엘리아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아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신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아의 주도하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한 북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 번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바로 그 때,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장별로 내리셨던 가뭄을 멈추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주십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 왕국의 종교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대신에, ‘엘리아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엘리아는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옳은 일을 행할 때, 예기치 않은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성공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듣게 된 엘리아는 브엘세바까지 도주합니다. 브엘세바는 남 유다 왕국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북 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통치권 밖이므로 생명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떨칠 수 없는 불안함이 이끌려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영적인 외로움에 사로잡힌 엘리아는 ‘로렘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는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는데도, 북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고 불평합니다. 엘리아가 불의해서가 아니라, 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엘리자벳 쉼평(서서평)’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마다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성공과 영광만을 지향하다보면 실패의 장벽을 대면할 때마다 큰

두려움과 대면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6:24). 예수님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위로 하셨습니다(마 5:11~12).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성도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번 아웃 증후군’에 빠진 엘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꾸중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꼬박 하루 동안 도주하느라 지쳐 잠든 엘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실패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엘리아를 어루만져주십니다. 적막한 광야에서 홀로 외로움에 빠져있는 엘리아에게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차가운 밤기운으로 떨고 있는 엘리아를 위해 숯불을 피워주십니다. 도주하느라 온종일 굶주린 엘리아를 위해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낙심하고 있는 엘리아에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고 염려와 위로를 더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마와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엘리아는 40일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엘리아에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엘리아의 참 모습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산을 부술 만한 큰 바람도’, ‘가람 가운데 지진도’, ‘지진으로 갈려진 땅 속 뜨거운 불길도’ 아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이론 승리보다도,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용맹보다도, 세미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아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엠마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기 보다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함께 마음도 나누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짝막한 사귀를 통해 듣게 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뜻을 깨닫고 다시 제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주변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지체를 향해 수군거림과 정죄의 눈총을 주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섬기는 성도가 됩니다.

셋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힘을 얻게 된 엘리아에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위해 두려워 도망쳐 빠져나왔던 북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아의 모습 속에는 급하게 도망쳐 나오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엘리아는 마음의 중심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아가 낙심할 때도, 엘리아가 도주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독려하십니다. 영적인 외톨이였던 엘리아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성도 칠천 명과 동역자 엘리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막 14:36).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 받는 성도가 됩니다.